"속삭이자 숲과 새・시냇물과"

第33回 日本自然公園大會 參觀

—「湯속에도 꽃이 핀다」는 노래로 이름난 草津(구사쯔) 紀行—

李 和 永

"속삭이자 숲과 새 그리고 시냇물과"의 「캣치프래이즈」를 걸고 4천여명의 自然愛護人들이 전국에서 모인 제33회 일본자연공원대회가 지난 7월24・25 양일간 群馬縣 上信越高原 國立公園內 草津町의 天狗山麓에서 개최되었다.

大會場인 草津은 東京에서 汽車로 2時間 반정도 西北쪽에 자리한 海拔 1,300m의 上信越高原 國立公園內에 있으며 人口는 不過 8천6백명밖에 안되지만 周圍에는 活火山, 原始林, 温泉, 스키場 등이 散在하고 있는 이름난 休養地인 산골 마을이다.

아마도 연만하신 會員들께서는 「구사쯔 좋은 곳 한번쯤 찾아와 주세요네. 끓는 湯속에서도 놀랍게 꽃이 피는구나. 얼씨구 좋다」로 시작되는 구사쯔부시(草津節=草津民謠)를 기억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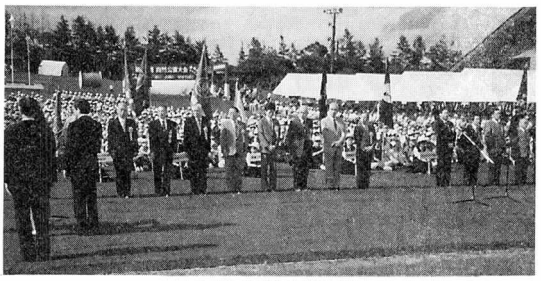
湧出量 37,000ℓ/分으로서 日本 第2를 자랑하고 있는 이곳 温泉에서 피는 꽃이란 다름아닌 硫黃粉이다. 温泉물을 나무로 만든 藥葉水路로 계속 내려 보내면 硫黃粉이 노랗게 달라 붙는데 이것을 모아서 소위 「湯花」라 하여 팔고 있다. 이곳 뿐만 아니라 日本의 有名한 温泉에서는 그 成分을 濃縮시켜 東京의 百貨店에서 팔고 있으니 氣分나는대로 골라서 집에서 有名 温泉의 맛과 氣分을 낼 수 있다.

皇族의 臨席이 大會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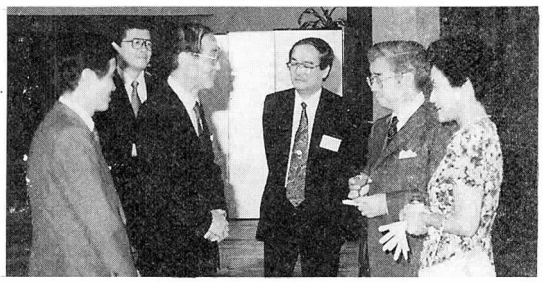
第1回 國立公園大會(14回때에 自然公園大會로 名稱바뀜)가 1959年 日光國立公園에서 皇太子臨席下에 開催된 以來 每年 皇族의 臨席下에 열리는데 環境廳・國立公園協會, 그리고 開催地의 縣이 共同主催하고 있다. 이번 大會에는 平成天皇의 동생인 히다치노미야(常陸宮)內外가 主賓이었다. 開會式典, 리셉션, 캠프화이어 등 모든 行事는 皇族을 위주로한 進行이었으며 日本人들의 皇族에 對한 尊敬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온國民이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나라의 상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한때였다.

▲ 日本皇族이 묵는 大會本部호텔에 게양된 太極旗(左)

「리셉션」에서 皇族內外는 포도주잔을 들고 紹介받는 人士와 간단한 人事만 나누는 것이 皇室의 法度였다. 日本人과는 결코 握手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차례가 되어 文副會長과 나란히 人事를 했더니 포도주잔을 왼손으로 옮겨 잡고는 握手를 請하였다. 外國人과는 握手를 하는 것이다. 「멀리서 와주어서 고맙다—이번 大會가 끝나면 다른 國立公園을 訪問할 계획이 있느냐— 氣候는 그런데로 괜찮으나 放學中이어서 交通이 붐빌 것이다」등 간단한 對話가 있었는데 日本人들은 그 對話의 內容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大會 開會式全景



▲左로부터 筆者, 愛知和男 環境廳長官, 文莊寅 副會長, 瀨田信哉 環境廳 審議官, 日皇弟, 常薩宮殿下夫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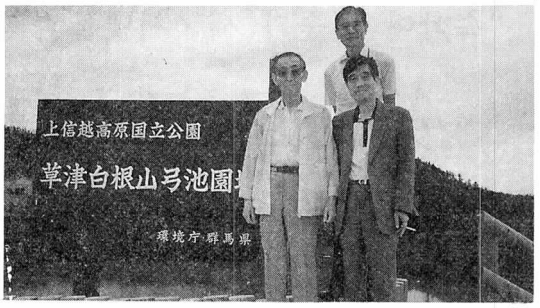
國立公園協會位相 높이는 配慮

官이 主導하는 行事이긴하나 國立公園協會의 位相을 높혀주는 大會였다.

開會宣言과 "캠프화이어"의 마무리宣言을 國立公園協會 大井道理事長(會長代理)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貴賓臨席下에 長官이 主催하는 行事에서 이와같은 配慮는 우리로서는 부럽기만 했다. 또한 主催地인 群馬縣은 공교롭게도 知事는 死亡하고 副知事는 辭表를 내고 知事선거에 出馬中이었는데 이같은 큰 行事를 知事職務代理인 總務部長(우리의 局長級)이 맡아서 縣의 部, 課長들과 合心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進行시키는 能率에 또한번 놀랐다. 環境廳長官인 愛知和男氏는 美男型의 젊은 政治家로서 氣風이 있으면서도 禮儀바르고 겸손했다. 大會의 成功的인 終了를 自祝하는 宴會에서 그는 권하는 술잔과 人事를 일일히 무릎을 꿇고 받았으며 文副會長과는 長時間에 걸쳐 對話를 나누었고, 序列로는 末端이나 開催地인 草津町長 山本 巖씨와도 격의없이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官僚로서가 아니고 오랜 政治人 生活에서 몸에 익힌 "매너"로 보였다.

韓·日間 政治次元의 協力必要

韓·日間의 國立公園關係交流는 오래前부터 兩國間의 協會次元에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人的交流(韓國側：學術세미나演士로 招請·日本側：自然公園大會에 招請)도 잦았다.



▲大會가 열린 국립공원의 스카이웨이에서 本會 文莊寅副會長(左)과 筆者. 뒤의 분이 日本국립공원협회 상무이사 大崎清見씨.

이번 大會에서 만난 公職者(環境廳長官·審議官·企劃調整課長·國立公園課長·自然과의 接觸促進室長 등)와 國立公園協會理事長, 大崎常務理事 등과의 對話에서도 이제는 進一步하여 政府次元의 協力이 이루어져야할 段階에 왔음을 强調하고 있었다. 「國立公園運動에는 國境이 없다」 또는 「國立公園의 制定은 人類最大의 發明이며 永遠不變하다」는 말이 流行되고 있는 國際潮流 속에서 이웃인 日本과의 國立公園關係의 政府次元의 交流는 그 當爲性이 自明하다.

參考로 現在 世界의 117個國이 國立公園을 指定하고 있고 그 數는 1,335個所이며 全體面積이 2,760,000㎢로서 韓半島 面積의 13倍에 이르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國立公園과 國定公園을 합쳐서 83個所로서 그 面積이 33,854㎢나 된다.

우리돈 약 10億원의 經費를 거의 縣이 맡아 치루는 低力

우리 돈으로 10億원에 가까운 豫算으로 每年 名勝地를 골라 번갈아가며 自然公園大會를 開催하고 있는 日本人들의 底力과 傳統, 그리고 自然을 사랑하는 國民들의 共感帶에 놀랐고 한편 부럽기도 했다. 中央政府의 經費 支援은 極히 적고 거의가 開催地의 縣이 負擔하고 있는데도 地方自治가 뿌리내린 이 나라의 地方政府官僚들의 大會를 치루는 誠實性과 正確性은 놀랍고 부럽다. 來年 8月에는 第34回 大會가 北海道의 支笏洞爺(씨꼬쯔 도우야) 國立公園에서 開催될 豫定이라 한다.

〔筆者：本會代議員·大韓重機協會 常勤副會長〕